

다원주의 시대에서 대순사상의 세계시민성 가치연구

김 용 환

충북대학교 · 교수

- | | |
|-------------------------|------------------------|
| I. 머리말 | IV. 해원상생의 원리와 관용신뢰의 가치 |
| II. 음양합덕의 원리와 생명존중의 가치 | V. 맺음말 |
| III. 신인조화의 원리와 연대통합의 가치 | |

I. 머리말

오늘날의 세계는 서로 모순된 양상을 보인다. 세계화를 축으로 삼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획일화시키는 통합과정과 함께 정치이념의 대립은 사라졌지만 그 이후 각 민족과 지역의 특수한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다원갈등의 추세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이제 지구촌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모두 동일한 범지구적 생활방식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심지어 서부 아프리카 마을에도 지구촌 차원의 새로운 생활도 가능하게 되었다.¹⁾

과거를 돌이켜보면, 구한말 조선에서는 삼정문란(三政紊亂)으로 말미암아 정치혼란이 가중되는 세기말 상황에 직면하면서 천지개벽에 대한 갈망이 새로운 희망으로 대두되었다. 현대의 다원주의 시대를 맞

1) 한스 페터 마르틴·허랄트 슈만 강수돌 옮김, 『세계화의 빛』 (서울: 영림커뮤니케이션, 2009), p.44.

이하면서 종교적 신념체계 또한 역사적, 문화적 상대성을 나타내기엔 진리 독점권을 전제로 배타성을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 오늘날의 전자 통신망은 온 지구를 씨줄과 날줄로 뻗뻗이 엮어주고, 디지털 위성 전화망이 곳곳의 사람들을 연결해 준다.²⁾

우리는 이 글을 통하여 다원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대순사상에 나타난 세계시민성의 가치를 모색하고, 종교윤리 방법에 근거하여 대순사상의 세계시민성 가치를 규명하고자 한다. 세계시민성 가치는 세계시민의 ‘공통핵심’(common core)에 근거한 보편규범을 말한다. ‘공통핵심’의 보편규범은 ‘책임의 세계적 범위’(Global scope of responsibility), ‘공동체에 대한 세계시민의 태도’(Global citizen’s attitude towards one’s community), ‘인간의 동등한 도덕적 지위’(Human’s equal moral status)로 이루어진다.³⁾ 세계시민성의 ‘공통핵심’은 한스 쾅(Hans Küng)의 세계윤리 초석(礎石)에 근거한 것이다.⁴⁾

비폭력(非暴力)을 실천할 경우, 평화를 증진시킬 ‘세계적 책임의 범위’와 연관이 되면서 세계적 수준의 평화적 책임까지 고려하게 된다. 또한 ‘특정 공동체’에 속하지만 ‘공동체에 대한 세계시민의 태도’에서 다시 숙고하여,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벗어나 세계동포주의 차원까지 고려하고 행동으로 옮긴다. ‘인간의 동등한 도덕적 지위’는 삶이 비록 균등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권리’에 대한 실천 잣대가 동등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공통핵심’의 새 규범을 수용한다. 세계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선택과 결단에 있어 세계시민성은 세계시민의 ‘공통핵심’을 심사숙고하면서, 공공행복을 증진하는 ‘다문화 책임’에 달려 있다.⁵⁾

대순진리회의 중지는 세계시민으로서의 ‘공통핵심’의 가치가 반영되

2) 같은 책, p.55.

3) Nigel Dower, “Global Ethics and Global Citizenship”, *A Global citizenship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Routledge, 2002), pp.149-150.

4) 같은 책, p.152.

5) 같은 책, p.157. ‘다문화 책임’(multi-cultural responsibility)은 ‘연대성의 다원주의’(solidarist-pluralism)처럼 기본적인 인권을 신장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믿음을 존중하고 연대성에 근거한 풍요주의를 중핵으로 삼는다.

어, ‘음양합덕의 원리’, ‘신인조화의 원리’, ‘해원상생의 원리’가 드러난다. 여기서 세계시민성의 공통핵심의 ‘세계적 범위’, ‘세계시민의 태도’, ‘동등한 도덕적 지위’는 ‘생명존중의 범위’, ‘연대화합의 태도’, ‘관용신뢰의 지위’와 상응한다. 따라서 이 글은 대순종지의 원리와 세계시민성 가치를 ‘음양합덕의 원리와 생명존중의 가치’, ‘신인조화의 원리와 연대화합의 가치’, 그리고 ‘해원상생의 원리와 관용신뢰의 가치’로 상관연동의 맥락화용 관점에서 대순사상의 세계시민성 비전을 고찰하고자 한다. 만약 대순진리회의 종지에 나타난 ‘음양합덕의 원리’, ‘신인조화의 원리’, ‘해원상생의 원리’를 세계시민으로서의 ‘공통핵심’과 상관연동의 맥락화용으로 밝히면, 대순사상의 종지에서 세계시민성 함양의 비전의 존재여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순사상의 ‘음양합덕의 원리’는 하늘과 땅의 음양합덕, 남녀의 음양합덕, 증산과 정산의 음양합덕으로 서로의 이질적 덕성을 화합시키는 원리이다. 이는 곧 합덕에 의해 생명가치의 역동성을 발휘하는 관건이 되기에, 생명이 마땅히 존중을 받게 되는 ‘공통핵심’의 존재가치로 드러난다. 그 시작은 소규모 화합에서 출발하겠지만, 점차로 세계적 규모의 대화합에 이르는 책임을 공공으로 다루기에, 대순사상의 ‘음양합덕의 원리’는 ‘생명존중에 의한 책임의 세계적 범위’와 회통(會通)할 수 있다.

또한 대순사상의 ‘신인조화의 원리’는 후천선경이 신인조화로 이루어지고, 인간과 신명이 상통하여 결실을 맺으며 도통의 개벽문명을 미래지향적으로 열어가는 조화의 원리이다. 소규모의 조화에서 비롯하지만 세계규모의 도통문명에 이르고 ‘세계시민으로서 윤리의식’을 반영하기에, 대순사상의 ‘신인조화의 원리’는 ‘공동체에 대한 세계시민의 태도’와 상통한다.

그리고 대순사상의 ‘해원상생의 원리’는 선천 수만 년 동안 상극(相克)이 지배하여 모든 인사(人事)가 도의(道義)에 어긋나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에 넘쳐 살기가 터져 나와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켜서 세상을 폭과할 지경에 이르러 상제께서 삼계공사(三界公事)를 행하여 극(極)에 달한 신계(神界)와 인계(人界)의 원한을 풀고 앞으로 그러한 원한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법리(法理)를 마련하고 인간을 개조(改造)하여 세상을 화평하게 만드는 원리이다. 비록 소규모의 상생에서 출발하지만, 마침내 세계규모의 평화를 성취하는 상생으로 바뀜으로 나아가기에 세계시민으로서 ‘동등한 도덕적 지위’와 소통(疏通)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의 종지에는 앞서 언급한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 이외에 도통진경이 포함된다. 음양합덕은 세계의 ‘조판’(肇判: 처음 쪼개어져 갈림)이며, 신인조화는 신인(神人)의 성숙이고, 해원상생은 공공의 은혜(恩惠)이며, ‘도통진경’은 선경비전의 성취이다. 앞의 세 요소가 대타지향을 전제로 삼는다면, 뒤의 ‘도통진경’은 ‘즉자지향’(卽自指向)의 주체성과 연동되기에, 세계시민성을 중심과제로 삼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⁶⁾

조정산(趙鼎山) 도주(道主)께서 정립한 대순사상에는 신앙대상과 종지, 신조와 목적, 천지공사의 전개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사강령(四綱領)과 삼요체(三要諦)의 신조(信條)로서 수도방법까지 명시되고 목적달성을 위한 요건을 밝힌다. 대순사상의 신앙대상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로서 동아시아에 등장한 도교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과 연관성이 있다.⁷⁾ 구천(九天)이라는 높은 하늘의 상제(上帝)께서 삼계(三界)를 통찰(統察)하사 건곤(乾坤)을 조리(調理)하고 운화(運化)를 조련(調鍊)하시는 높은 위(位)에 계시다가, 지상의 신성(神聖)·불(佛)·보살(菩薩)들이 회집(會集)하여 비겁에 빠진 신명, 혼란에 빠진 천지와 인류구원에 대한 하소연에 응답하여 ‘인신’(人身)으로 화현(化現)하셨다.

6) 같은 책, p.156. 세계시민성을 ‘즉자지향’의 주체성을 앞세우면, 문화제국을 지향하는 근본주의로 돌아간다.

7) 박용철,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신앙에 대한 한·중 제도권의 대응」, 『대순사상논총』 21 (2013), p.317.

대순사상의 신앙대상, 구천상제는 “군생만물(群生萬物)을 뇌성(雷聲)으로 보화만방(普化萬方)하시는 지대지성(至大至聖)한 삼계(三界)의 지존(至尊)”이며, “우주(宇宙) 삼라만상(森羅萬象)을 삼계대권(三界大權)으로 주재(主宰) 관령(管領)하시며 관감만천(觀鑑萬天)하시는 전지전능(全知全能)한 하느님의 존칭(尊稱)”이다.⁸⁾ 대순사상에서는 타자 또는 이웃의 종교문화의 진수를 복합적으로 수용하는 ‘복합주의’(multiplism)의 기제방식을 취한다. 대순사상은 타자 또는 이웃의 종교문화를 정복하려는 ‘동질화’(homogenization)의 태도를 취하지 아니한다. 종래의 기독교문화는 ‘문화적 동질화’(cultural homogenization)를 내세워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이르는 선교활동을 통하여 ‘복음의 기독교’로 다가선 적이 있었다.⁹⁾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열등문화를 정복하거나 종종 폭력양상을 수반한 경우가 초래되었다.

또한 대순사상은 타자 또는 이웃의 종교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거부하는 ‘배제’(exclusion)의 양태를 취하지 아니한다. ‘배제’는 상대를 부정하고 폭력을 은폐하기에 결국 폭력으로 치닫게 된다. 문화적 편견에 토대를 두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서구주의’(occidentalism) 그리고 ‘민족주의’(nationalism)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되며, 특수와 보편 사이에서 ‘공공’(公共)의 세계시민성을 함양하고 실천하는 새로운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¹⁰⁾

반면에 대순사상은 타자 또는 이웃의 종교문화에 대해 존재론적으로 다가서려는 ‘복합주의’(multiplism)의 양태를 취한다. 타자 또는 이웃의 종교문화에 대해 ‘우애’(friendship) 또는 ‘친밀감’(affinity)으로 다가서고, ‘함’(함: 함께 들어 있거나 함께 넣음. 음은 내포수용, 양은 보충확장, 음양합덕은 침투전화)으로 그 진수를 함께 모아 복합·활용

8)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서울: 대순진리회 교무부, 2003), pp.6-7.

9) Peter L. Berger, “Many Globalization: The Cultural dynamics of Globalization”, Howard J. Wiarda ed., *Globalization* (Leban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2007), p.26.

10) 김용환, 『세계윤리교육』 (청주: 충북대출판부, 2010), pp.173-174.

하며 “타자를 비폭력으로 받아들이고, 상호적 호혜관계를 수립하여 평화수립에 기여한다.”¹¹⁾ 대순사상은 세계시민성을 함유한다. 구천상제는 진멸위기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고자 “참화 중에 묻힌 무명의 약소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 주려고 하였다.”¹²⁾

대순사상에서 이 땅은 상제의 관심을 받은 곳으로 묘사된다. 또한 종교 갈등을 극복하고 세계 역사를 주도할 ‘상생’(相生)으로 위대한 정신문화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상제는 한민족의 밝은 미래와 영광을 약속하였다. 문화적으로 우리는 세계시민주의 삶을 살고 있다. 더욱 많은 곳에서 들어오고 더욱 많은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문학, 예술, 종교, 영화가 세계시민주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¹³⁾

II. 음양합덕의 원리와 생명존중의 가치

1. 음양합덕의 원리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은 음과 양의 갈등적 제약을 넘어서 화합하는 시민성이다. 그것은 이웃과 환경 그리고 세계와 미래에 대한 책임을 수반한다.¹⁴⁾ 대순사상의 음양합덕(陰陽合德)은 구천상제께서 대순하신 음양구성과 합덕원리에 근거한다. 정음정양을 이루지 못하고 음양 어느 쪽에 과부족의 현상이 나타나면 합덕이 되지 못해서 대순을 이룰 수가 없다. 음양은 대대관계(對待關係)를 형성하며 상

11) Chakravarthi Ram-Prasad, *Indian philosophy and the Consequences of Knowledge* (Hampshire: Ashgate, 2007), p.5.

12) 『전경』, 권지 1장 11절.

13) 콰메 앤터니 에피아 지음, 『세계시민주의』, 실천철학연구회 옮김 (서울: 바이북스, 2009), p.206.

14) Hans Küng, *Global responsibility* (New York, Continuum, 1996), p.30.

호 보완한다. 선천에서는 음양의 균형·합덕이 성취되지 못하고 원기(怨氣)로 충만하여 상극을 초래하였다. 서로 이질적 관계를 보완하고 합심하기 위해서는 선천의 운행원리, ‘상극지리’(相克之理)를 바꾸는 방안이 요청되었다. 상제께서는 먼저 천지신명을 심판한 후 후천을 ‘정음정양’(正陰正陽)으로 개벽하였다.

「너는 정음 정양의 도수니 그 기운을 잘 견디어 받고 정심으로 수련하라」고 분부하시고 「문왕(文王)의 도수와 이윤(伊尹)의 도수가 있으니 그 도수를 맡으려면 극히 어려우니라」고 일러 주셨도다.¹⁵⁾

인륜은 음양합덕의 관계가 요체이다. 문왕의 상극지리를 변화시켜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해서는 음양합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를 위해서 보사(補瀉)의 원리가 요청된다. 부족한 부분을 보(補)하고, 과잉한 부분을 사(瀉)하는 충족원리이다. 음양은 동가(同價)로 자리매김해야 정음정양이 되고, 동가이기에 합덕이 가능하다.¹⁶⁾ 선천차별에 의한 수많은 ‘원’(冤)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상생을 위한 ‘비폭력’의 실천이 중시된다. 서로가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그 장점을 두루 합덕하게 되는 마음가짐이 요체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조화로운 시민성을 갖추게 되면, 생명역동성의 실천에 의한 세계시민성 가치를 살려내게 된다. 대순사상의 음양합덕은 천지의 ‘조판’(肇判)으로, 생명의 역동성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의 문제는 앞으로 인류가 풀어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¹⁷⁾ 다문화 책임의식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허물이 있다면 모두 풀어야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성도 회복된다.

15) 『전경』, 공사 2장 16절.

16) 이항녕, 『현대문명과 대순사상』 (포천: 도서출판 일심, 2004), p.81.

17) Hans Küng, 앞의 책, p.84.

허물이 있거든 다 자신의 마음속으로 풀라. 만일 다 풀지 않고 남겨두면 몸과 운명을 그르치니라.¹⁸⁾

‘음양합덕’은 후천개벽의 설계도이며 새 문명의 치유로 ‘음양 갈등’(陰陽 葛藤)으로 생겨난 참혹한 현실을 개혁하는 것이다. 새로운 우주에서는 우주의 주체로서 인간이 지극(至極)·지대(至大)한 생명의 존엄성을 ‘향유’(享有)함으로 ‘인존’(人尊)의 시대로 전환하게 된다.

음양합덕은 음으로 내포수용하고 양으로 확장하여 생명의 상호 관계성을 이룬다. 신성도 물질계 너머에서 발견되면서 동시에 우주계에 내재(內在)한다. 음양의 ‘대대’(待對)가 화합을 이루는 침투전화(浸透轉化)의 ‘묘합’(妙合)에서 호혜 활성화로 생명존엄을 회복한다. ‘독음독양’(獨陰獨陽)에서 벗어나 마음과 몸, 이상과 현실 그리고 무극과 태극이 ‘둘이 아닌 조화의 이치’로 합심하기에 음양합덕은 ‘심신합덕’(心身 合德)의 생명존중의 가치를 살릴 수가 있다.

2. 생명존중의 가치

세계시민성은 시민들에게 목적의식과 연대감을 심어주며 과편화 되어가는 시기에 안내자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세계시민들은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판단을 내리고, 때로는 권위당국자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용기’(civic courage)도 발전시킬 수 있다.¹⁹⁾ 또한 세계시민들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본질적인 가치로 인식한다. 같은 맥락에서 인권의 침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한다. 따라서 세계시민성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세계차원 공공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재건하는 데 힘써야 될 것이다.

18) 『진경』, 교법 2장 16절.

19) Turner, B. S. ed., “Outline of the theory of human rights”, in *Citizenship a social theory* (London: Sage, 1993), p.48.

새로운 세계질서를 위한 지구윤리의 두 가지 기본원칙은 ‘모든 인류는 인간답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것과 ‘당신이 당신에게 하여주기를 바라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변경할 수 없는 확실한 방향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자!’는 계율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비폭력과 생명에 대한 존중의 문화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²⁰⁾ 이에 따라 지역적, 토착적, 공동적인 환경에 뿌리 박고 있는 종교적 지도자들은 지구 공동체에 환경파괴, 핵 위협, 빈곤, 집단학살, 사회 붕괴 등의 주요한 위협에 직면하여 정신적 에너지를 결집할 상황에 이르렀다. 위협적 요소에 대한 개조(改造)가 요청된다.

천지공사는 천·지·인(天·地·人) 삼계(三界)의 개혁공사로서 구천상제 중심의 ‘광제창생’(廣濟蒼生)의 공사이다.²¹⁾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을 함께 뜯어고치고 개조함으로 생명존중의 가치를 살려냈다. 한 가지만 개조해서는 광제창생을 온전하게 구현할 수 없다. 유기적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정성을 기울일 때, 삼계의 개조공사는 완성된다. 인간개조 목적은 인간품격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천지공사에서 도수(度數)는 주요변수가 되어 변화양상과 정도를 파악하는 측정기제로 작동하며, 세상운도(世上運度) 조정공사(調整公事)의 요체이다.

「...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고 김 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 중의 명부 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²²⁾

우주계의 운도(運度) · 신명계의 조정(調整) · 인간계의 도리(道理)는 구천상제께서 미래의 정치 · 경제 · 문화 등에 대한 변천양상과 발전정

20) 한스 쾅, 「새 세계질서를 위한 지구윤리」, 『미래사회와 종교』 (익산: 원광대출판부, 2000), p.19.

21) 이경원, 「구천상제론의 시각에서 본 천지공사의 실제와 교리적 의의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22, p.73.

22) 『전경』, 공사 1장 3절.

도를 예측하여 설계한 청사진이다. 특히 ‘세운운도’(世運運度)를 통하여 서양인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남북분단의 비극에서 벗어나는 암시가 ‘도수’(度數)에 응축되어 있다.

물질문명을 앞세운 서양인들의 무력, 핵무기를 내세운 북한의 협박으로 유린되는 한반도의 위기상황에서 한국인이 세계사적으로 미래를 책임지는 위상으로 전환된다는 ‘도수’로서의 변화양상은 희망의 청사진이 되고 있다. 이러한 희망의 청사진에는 상호 호혜적 ‘황금률’(golden rule)이 제시되기에, 미래사회의 인류평화 구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천지공사의 종착역은 지상선경(地上仙境)의 건설이다. 상제께서 건설할 전망의 실상은 후천선경(後天仙境)에 초점을 둔다.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은 풍요로운 물질문명, 의학의 발달로 말미암은 불로불사(不老不死), 운행도수로 말미암은 우주계·신명계·인간계의 상관연동의 ‘평화낙원’(平和樂園)이 조성되는 청사진이다. 대순사상은 배타적이지 않고, 역사적 종말론을 취하지도 않고, 과거로 ‘회귀’(回歸)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타자 또는 이웃과의 상생기제로 말미암아 초월·신비 경험에 개방적 전망이며, ‘존재본연’(存在本然)의 본성에 눈을 떠서 생명을 위하고 살리는 생명존중의 가치를 형성한다.

“생명은 의식의 차원으로 제한되지 아니한다. 생명으로서 나는 우주신인론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되어 따로 개체화된 단순한 ‘자아’(ego)가 아니다.”²³⁾

이제 이러한 생명존중의 전일성(全一性: 전체로서 통일성을 이루는 성질)은 음양합덕 전화에 따른 역동적 삶을 창출하도록 타자와 이웃을 함께 살리는 실천을 수반한다. 대순사상은 서양문물이 인간의 교만과 난폭을 키워 삼계를 혼란시키고 구렁텅이로 몰아넣었기에, 그 치유책으로 천지공사의 도수에 따라 생명존중의 범위를 새롭게 확장시켰다고 할 것이다.

23) 한스 쾅, 앞의 책, p.43.

III. 신인조화의 원리와 연대화합의 가치

1. 신인조화의 원리

대순사상은 ‘신인조화’(神人調化)를 또 다른 중지로 삼는다. 대순사상의 ‘조화’(調化)는 ‘조화’(調和)와 ‘造化’(造化)의 의미를 포괄하는 합성어로서, 앞의 ‘조화’(調和)는 ‘서로 잘 어울림’을 말하고, 뒤의 ‘造化’(造化)는 ‘만물을 창조하고 이룸’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순사상의 ‘신인조화’(神人調化)는 신과 인간이 존재론에서 화합하여 우주적이고 신비로운 새로운 가치를 무한히 창출하는 ‘창발’(創發)로서, ‘조화’(調和)가 있어야 ‘造化’(造化)를 낳게 됨이다.

새로운 가치는 신인조화로 지상선결이 이루어진다는 궁극적 존재론과 연관된다. 이는 곧 ‘인존’(人尊)의 실현가치이며, 인존세계를 지상천국(地上天國)이라고 부른다. 인간의 소망과 신의造化(造化)가 ‘조화’(調和)를 이룸으로써, 신이 인간을 그 집으로 삼아 합체(合體)를 이루는 존재론이다. 그런데 신의 질서가 인간 세상에 구현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간의 마음에 있어서 체각기의 한도(限度)를 지니고 있기에 그 한도대로 신(神)과 결합하여 조화의 경지를 이루게 된다.

천지에 신명이 가득 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 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나니라.²⁴⁾

신인조화는 신인일체(神人一體)의 관계형성에 의한 신인협력(神人協力)의 성취이다. 신인조화가 이루어지면, 감히 그 누구도 속일 수 없으며 확고한 신의 질서에 어긋나서는 단 한시도 그 생명을 지탱할 수 없다. 모든 신을 거느리는 상제라는 최고신은 창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24) 『전경』, 교법 3장 2절.

신들의 권력남용을 통제하는 관리자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구천상제가 자의로 하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신들의 간청에 의한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⁵⁾ 또한 『명심보감』(明心寶鑑)에서 “사람의 사사로운 말도 하늘이 듣는 것은 우렛소리와 같으며 어두운 방에서 마음을 속여도 신의 눈은 번개와 같다”²⁶⁾고 말하고 있듯이, 신의 감시와 수찰이 아주 엄격하여 감히 속일 수 없고 어길 수 없는 상태임을 『전경』의 「천지귀신주문(天地鬼神呪文)」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제께서 어떤 공사를 행하셨을 때 所願人道 願君不君 願父不父 願師不師 有君無臣其君何立 有父無子其父何立 有師無學其師何立 大大細細天地鬼神垂察의 글을 쓰시고 이것을 「천지귀신 주문(天地鬼神呪文)」이라 일컬으셨도다.²⁷⁾

장차 신인조화의 세상이 도래하면, 신의 엄격함과 ‘지공무사’(至公無私)로 말미암아 만사(萬事)가 신도(神道)의 권위로서 행해진다. 역설적으로 신도의 권위가 추락하면 삼계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결국 “서양의 모든 문물이 천국의 모형을 본뜬 것”이지만,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었다”²⁸⁾고 하였다. 이제 신명시대를 맞이하면 신과 인간의 합일에 따른 성숙한 시민성으로 국가시민성을 벗어나는 시민성이 가능하다.

지금엔 신명시대니 삼가 힘써 닦고 죄를 짓지 말라. 새 기운이 돌아 닦칠 때에 신명들이 불칼을 들고 죄지은 것을 밝히려 할 때에 죄지은 자는 정신을 잃으리라.²⁹⁾

25) 이항녕, 앞의 책, p.103.

26) 『명심보감』, “人間私語 天聽若雷 暗室欺心 神目如電”

27) 『전경』, 공사 3장 40절.

28) 같은 책, 교운 1장 9절.

대순사상에서는 타종교의 신이나 민속의 신을 배척하지 않고 모두 신으로 인정하다. 공존하는 신들 사이에 위계질서가 있고, 그 위계질서를 관리하는 최고신이 존재함으로써 신명계의 평화적 공존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제는 모든 신명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자이다. 따라서 ‘신인조화’(神人調化)의 세상은 부정과 불의가 없는 세상, 밝고 투명한 세상이다. “편재하는 신의 존재가 도처에 모습을 드러내면, 어느 곳에서나 그를 볼 수 있다.”³⁰⁾ 대순사상의 신인조화는 타력의 기적에 의존하기보다 여러 갈래의 문화의 정수를 뽑아 통일한 도수에 따른 것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찾기에 가장 확실한 사실로 인정될 수가 있다.

상제께서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의 정수를 뽑아 통일하시고 물 썰 틈 없이 도수를 짜 놓으시니라.³¹⁾

사람마다 그 닻은 바의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느니라. 남의 자격과 공부만 추앙하고 부러워하고 자기 일에 해태한 마음을 품으면 나의 신명이 그에게 옮겨가느니라.³²⁾

신인조화 시대의 ‘신응현상’(神應現象)은 기국(器局)에 따라 신(神)이 감응하는 현상이다. 사소한 일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신은 적게 감응하며, 도(道)에 근거하여 큰일에 매진하는 사람에게 신은 크게 감응하여 ‘큰 일’을 이룬다. ‘큰 일’은 상제의 덕화를 따르는 것으로, 도통(道通)으로 ‘인존’(人尊)을 실현함을 의미한다. 신과 조화하는 인존시대에서는 마음을 부지런히 닦아 ‘청정무구’(淸淨無垢)하게 되고, 자신

29) 같은 책, 교법 3장 5절.

30) Yujin Nagasawa, *The Existence of God* (New York: Routledge, 2011), p.19.

31) 『전경』, 예시 12절.

32) 같은 책, 교법 2장 17절.

의 본분과 직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매사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아울러 인간의 ‘일거일동’(一舉一動)에 신명작용이 미치기에, 인간과 신명의 조화(調和)·造化(造化)로써 ‘어천만사’(於千萬事)에 ‘형통자재’(亨通自在)한다.

대순사상의 신은 구천상제로부터 인간 사후(死後)의 다양한 혼령 그리고 천지만물이 제대로 존재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관(機關)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상에 신들로 꽂차있기에 ‘지오지밀’(至奧至密)의 작용이 가능하다. 신은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들락거리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조화를 실현하려면, 신인이 상통해야 한다. 그리고 전인격적인 변화를 위하여 신인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신인조화는 선천과 다른 존재론의 언명(言明)이다. 선천에서는 신(神)에게 의탁하여 빌고 의지했지만, 후천에는 오히려 신을 ‘봉’(封)하고 부리는 차원으로 존재론적 일대 전환을 일으킨다. 신인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생명의 존엄성이 천명된다. 종래는 신이 높아서 인간에게 군림하였지만 구천상제는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대권을 행사하기에 상제의 권능은 인간이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권재민’(主權在民)처럼 인간이 신성을 완성하여 창생을 제도하다는 신인합일이 되어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³³⁾

천지의 중앙이 마음이다. 고로 동서남북신이 마음에 의지한다.³⁴⁾

『대순진리회 요람』에서 상제의 신격 가운데 뇌성의 함의를 말한다. ‘뇌성’(雷聲)이라 함은 천령(天令)이며 인성(仁聲)인 것이다. 뇌(雷)는 음양의 이기(二氣)의 결합으로써 ‘성뢰’(成雷)된다. 뇌는 성(聲)의 체(體)요, 성은 뇌의 용(用)으로서 천지를 나누고 동정진퇴(動靜進退)의 변화로 천기(天氣)와 지기(地氣)를 승강(乘降)하게 하며 만물을 생장하게 하고 생성변화(生成變化) 지배자양(支配滋養)함을 뜻함이다.³⁵⁾ ‘뇌

33) 이항녕, 앞의 책, p.107.

34) 『전경』, 교운 1장 66절, “天地之中央心也 故東西南北身依於心”

성보화천존'의 뇌성은 구천상제께서 해인(海印)을 주재하는 최고신 상제로서의 의미이다. 조정산 도주는 '해인삼매'의 해인을 조화능력으로 해석하여, 그 조화가 '장중'(掌中)에 있다고 했다. 해인의 조화를 얻기 위해 신물(神物)의 징표를 찾을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일심수도'(一心修道)를 임할 것을 주문한다.

성사(成事)의 주체는 인간으로 후천에는 인간생명이 존엄하며, 일을 성공시키는 주체가 인간으로 바뀌면서, 언약을 받은 해인을 획득한다. 해인의 조화는 종말론적 말세론으로 치우치지 않고, 상제 덕화에 근거하여 연대화합으로 '진법공부'의 응답을 한다. 이러한 진법공부는 시학 공부, 강식법방, 시법공부와 함께 도통진경에 이르는 요체가 된다.³⁶⁾

2. 연대화합의 가치

대순사상의 신인조화는 연대화합의 가치를 지향한다. 선천을 후천의 개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제의 광구천하·구제창생·구세제민의 권능이 연대화합의 가치로 나타난다. 서로 다른 문명에서 다르게 통용되는 실천체계에서 인간의 심성에 내재하는 천심(天心)을 회복하기까지 종교 사이의 화해와 회통이 필요하다. 연대화합의 가치로 말미암아 종교 사이의 회통이 이루어진다. 또한 천·지·인 우주만상을 관장하는 상제의 권능이 일상에서 체험된다.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을 조화(調化)시키는 상제권능이 발현되어 광구천하·구제창생·구세제민을 위해 말씀으로나 천계대권의 연대화합으로 구체화된다.

상제께서 삼계의 대권(三界·大權)을 수시수의로 행하셨느니라. ... 말씀으로도 하시고 그 밖에 풍우·상설·뇌전을 일으키는 천계대권을 행하실 때나 그 외에서도 일정한 법이 없었도다.³⁷⁾

35) 『대순진리회요람』, p.7.

36) 김용환, 『종교윤리와 정산사상』 (청주: 충북대출판부, 2009), p.372.

또한 연대화합의 가치는 ‘포덕’(布德)과 ‘교화’(教化)로 구체화된다. ‘교화’는 대순사상의 이치와 대순진리의 교리를 상대에게 알기 쉽도록 이해시켜서 그 진리를 확신하게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임기응변으로 임하기보다 진실을 이웃에게 알려 심정적으로 믿도록 함에 그 요체가 드러난다. 따라서 포덕교화는 화기애애하게 편안한 장소에서 안정된 시간을 택하여 부담 없는 대화로써 진행되는 가운데 신앙심을 높여 도통진경에 이르도록 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상제의 권능을 통하여, 갈등적이며 이질적인 여러 요소들은 마침내 새로운 판으로 바뀌어 변모가 이루어지게 된다.

상제는 선천세계의 상극적 비겁(否劫)에 쌓인 신명과 창생을 건지기 위한 ‘개벽장(開闢長)’으로, 삼계대권의 능력으로 자유자재로 천지도수를 바꾸고 하늘과 땅과 신명과 사람을 조화시키는 천지공사를 행하는 권능을 나타냈다. 상제의 권능은 제한이 없고 일정한 법칙도 없이 자유자재하다. 천지자연의 운행법칙을 개벽도수로 조정하거나 뜯어고쳐 조화시키는 필요한 포덕교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포덕교화의 뿌리는 상제의 덕화(德化)라고 말할 수 있다. 갈등적이고 이질적 요소를 새로운 판으로 회통시켜 연대하도록 만드는 것이 덕화로서 무궁무진한 조화를 가능하게 한다.

풍·운·우·로·상·설·뇌·전(風雲雨露霜雪雷電)을 이루기는 쉬우나 오직 눈이 내린 뒤에 비를 내리고 비를 내린 뒤에 서리를 오게 하기는 천지의 조화로써도 어려운 법이라 말씀하시고 다시 「내가 오늘 밤에 이와 같이 행하리라」³⁷⁾

대순사상에는 ‘대순’(大巡)의 의미에서 나타나듯이, 세계를 하나의 인륜공동체로 포용하려는 정신이 담겨져 있다. 선천의 종교와 사상이

37) 『전경』, 공사 1장 4절.

38) 같은 책, 권지 1장 22절.

제각기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하면서 자신을 지켜가더라도 ‘대순’으로 회통한다. 문명의 대전환기는 인간이 선경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진다. 다민족·다문화·다종교 간의 연대화합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평화세계를 건설하려면 기존의 민족·문화·종교의 다양 각색의 정수(精髓)와 진액(津液)을 회통시켜 새로운 진법(眞法)으로 통합시킨다.

상제의 덕화로 포덕교화는 생활로 나타난다. 상제께서 세계창생을 구하기 위해 상생대도(相生大道), 신도를 세상에 홍포(弘布)하셨다.³⁹⁾ 개벽도수의 조정에 따라 일심도통을 더욱 굳건히 하고 이우를 ‘포덕교화’(布德教化)하는데 있어서 연대를 위해 성·경·신(誠·敬·信)의 생활화를 부각시킨다. 이러한 생활이 일만 이천의 도통군자를 창성하여 세계적인 규모의 연대화합을 가능하게 한다.

「도는 장차 금강산 일만이천 봉을 응기하여 일만이천의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 그러나 후천의 도통군자에는 여자가 많으리라」 하시고 「상유 도창 중유 태인 하유 대각(上有道昌中有泰仁 下有大覺)」⁴⁰⁾

세계윤리에서 연대화합은 ‘성실하고 정당하게 대하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세계화의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연대성의 문화와 화합의 경제체제에 대한 책임감으로 국가시민성의 경계를 벗어날 수 있다. 새로운 세계질서는 다원적인 세계사회가 공동의 동반자로서 평화를 증진시켜 자연친화적이고 ‘종교 일치’(ecumenical) 운동을 펼칠 때 보다 나은 질서가 구현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⁴¹⁾

39) 같은 책, 예시 6절.

40) 같은 책, 예시 45절.

41) 한스 쾅, 앞의 책, p.20.

IV. 해원상생의 원리와 관용신뢰의 가치

1. 해원상생의 원리

대순사상에서 해원상생의 원리는 정신적 허물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생명의 공감에 근거한 대타존재에게 그 외연을 확장시켜 맺힌 원한은 풀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원리를 말한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靈長)으로서, 해원상생의 원리를 깨달아서 성현(聖賢)에 이를 수 있다.

“성현의 위력은 천지의 위력보다 더 중하고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위력은 천지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된다.”⁴²⁾

흔히 원한에 사무쳐 죽은 영혼이 원력(冤力)으로 응결된 정신적 당체를 ‘원귀’(冤鬼)라고 하며, 원귀가 세계 곳곳에 해악(害惡)을 일으키거나 생존을 위협하면서 사회질서를 유린한다. 해원상생의 원리는 상대방의 원(冤)을 살펴서 해소시켜주는 원리에서 출발한다. 개개인의 ‘지원지통’(至冤至痛)의 원을 풀지 아니하고는 인간사회의 평화를 구현하기 어렵다. 해원의 기본은 이타정신을 살리는 것이다. 이러한 이타정신은 나를 희생시키고 남을 이롭게 하는 자해이타(自害利他)가 아니라 상제의 조율에 의한 자리이타(自利利他)이다. 남을 이롭게 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의를 앞세우면 이익이 따라온다는 것이다. 나와 남은 대립에서 벗어나 상제의 조율에 의해 공공은혜(公共恩惠)의 성취를 가능하게 한다.

반면에 남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남으로 하여금 나에게 대한 원한을

42) 김홍철, 『한국신종교사상의 연구』 (서울: 집문당, 1989), p.163.

품게 만들고 그 원한이 쌓이면 척(慼)이 된다. 원한에 사무친 모습이 척을 쌓아 선천의 ‘상극지리’(相克之理)를 지배하여 이어지게 한다.⁴³⁾ 선천의 상극이 지배하여 원한이 쌓이고 맺혀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고 갖가지 재앙이 일어나 세상이 참혹(慘酷)해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⁴⁴⁾

이제 동양(東洋) 형세가 그 존망의 급박함이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있으므로 상제께서 세력이 서양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공사를 행하셨도다.⁴⁵⁾

지구촌시대에서 진정한 협동은 먼저 해원이 된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해원이 가능한 동체의식에서는 ‘플러스 썸’(plus-sum) 현상이 나타나 자기가 이로우면 다른 사람도 이롭게 된다. 상극의 관계에서는 본심의 양심과 욕심의 사심이 공존하지만 해원의 상태에서는 본심의 양심을 가리는 사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력과 타력이 공공(公共)으로 감응하여 천지의 도수가 바로잡아진다.⁴⁶⁾ 우리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조화선경을 위해, 상제는 해원공사를 마치고 신명세계를 통합·단결시키는 신단통일 ‘조정공사’를 감행하였다.

신의 세계는 지방신·문명신으로 나뉘며, 지방신들은 지방에서 구성된 특수단체를 형성하고 지방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지만 경계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넘나들지 않았다. 지방문화가 접촉이 빈번해지자 지방신이 경계를 드나들어 대혼란이 일어났다. 상제는 지방 신명계의 혼란을 정비하고자 세계의 지방신단을 집결시키고 조화로운 신

43) 김홍철, 「해원상생사상과 그 실현이념」, 『대순진리학회논문집』 4 (2009), pp.71-72.

44) 『전경』, 공사 1장 3절.

45) 같은 책, 공사 1장 13절.

46) 이항녕, 앞의 책, p.138.

단을 조성하니 ‘지방신 조화공사’이다.⁴⁷⁾ 지금까지 민족·국가·지역 별로 서로 막혀 적대하며 소통이 없다가 상제께서 ‘지방신’들을 통일 시켜 통일신단을 형성함으로써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넘나드는 세상이 비로소 되었다.

문명신으로는 대소의 신단이 있는데 여기에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 그야말로 ‘대’(大) 신단을 결성하였다. 이것이 ‘문명신 조화공사’이다.⁴⁸⁾ 상제는 인류 역사를 원의 역사로 규정하고 그 원한이 가득차서 진멸지경에 이르렀음을 통탄하면서 그 원한을 풀기위한 다양한 해원공사를 전개했다. 신단조정 조화공사는 모든 원신 역신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해원공사로서 무정물 대지기령까지를 합하여 조화하게 함으로 ‘명부공사’(冥府公事)까지 조정하여 세상의 착란을 바로잡으셨다.⁴⁹⁾ 또한 상제께서 김형렬의 집에서 그의 시종을 받아 명부공사를 행하시니라. 또한 상제께서 형렬에게 “조선명부(朝鮮冥府)를 전명숙(全明淑)으로, 청국명부(淸國冥府)를 김일부(金一夫)로, 일본명부(日本冥府)를 최수운(崔水雲)으로 하여금 각기 주장하게 한다.”⁵⁰⁾고 하셨다.

이처럼 상제는 선천의 착란(錯亂)된 신계의 혼란을 바로잡아 통일하고 신명들에게 각기 위계와 임무를 정하여 주는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조화정부의 조직에 머금가는 정비를 단행하였다. 명부공사가 1901년 겨울부터 시작되었지만, 1908년 봄부터 단주 해원공사로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청사진에 따라 가슴에 맺힌 응어리는 풀어지고, 타자와 이웃을 해원상생으로 살리도록 ‘대전협동’(大全協同)의 ‘일대화해’(一大和諧)를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상제는 신명보다 인간을 더 높여 인간으로 하여금 신명을 통제하고 지배하며 신명이 인간에게 성사(成事)하도록 하는 인존시대 공사를 단행하였다. 비극종말의 치유가 해원상생(解冤相生)이며, 공공의 원(冤)을 풀어 마침내 문화정수를 집약하게 된다.

47) 이정립, 『대순철학』, p.154.

48) 같은 책, p.155.

49) 『전경』, 공사 1장 5절.

50) 같은 책, 공사 1장 7절.

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⁵¹⁾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각기 자기들의 생활 경험의 전승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며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상제께서 이제 민족들의 제각기 문화의 정수를 걷어 후천에 이룩할 문명의 기초를 정하셨도다.⁵²⁾

해원상생은 원통함, 비통함, 억울함을 풀어 고뇌와 번뇌를 씻는 씻김의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일차적이며 능동적인 원통과 이차적이며 수동적인 원통함을 함께 씻게 된다. 특히 상제께서는 기존의 정치권위·윤리도덕을 ‘원시반본’(原始返本)하여 창생의 원통을 풀어 주고자 하였다. 상극대립을 극복하려면 상극이치로 인하여 발생된 척이나 원한의 갈등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선천 상극을 발생시키는 풍운조화를 통하여 기후 변화를 바꿀 수가 있다. 상제는 힘없고 억눌리고 착취를 받던 농민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나타냈다. 이는 상제가 행한 기적·이적의 대부분이 풍작이나 농업과 관련된 풍운조화와 기후 변화, 가난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병과 재생 또는 난제해결로 입증된다.⁵³⁾

해원상생은 심리적 억압, 정치적 폭력, 억압적 이데올로기, 차별적 제도 등에 의한 ‘불편부당’(不偏不黨)과 연관된다. 억울함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개벽도수’(開闢度數)의 조화기운이 실현되어야 한다. 해원상생의 실천은 전통적 ‘살풀이’(解煞: 타고난 살을 푸는 의례) 문화를 승화시켜 원만조화(圓滿調和)를 가능하게 한다. 해원상생은 질곡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푸는 문화이다. 푸는 관점에서 이웃을 용서하는 ‘관용’의 문화와 이웃을 살려주는 ‘신뢰’의 문화가 공공으로 접목되어 인권회복을 개선하는 관용신뢰의 가치를 살린다.

51) 같은 책, 교법 2장 56절.

52) 같은 책, 교법 3장 23절.

53) 노길명, 「신흥종교 창시자와 추종자의 사회적 배경과 그들 간의 관계 - 증산교를 중심으로」, 『증산사상연구논집』 3 (1977), p.148.

2. 관용신뢰의 가치

관용신뢰의 가치는 주체성을 느끼면서 공감으로 발전한다. 그것이 즐거움과 연동되면, ‘자긍심’(pride)으로, 고통과 연동되면 ‘모멸감’(humility)으로 발전한다. 또한 주관적 감정이 ‘대상’(object)과 이어지면 자긍심과 연동된 ‘사랑’으로, 모멸감과 연동되면 ‘증오’로 발전한다. 상제께서는 하늘의 구름까지 연동시켜 자유자재로 움직이셨다.

상제께서 와룡리 황 응종의 집에 계실 때 어느 날 담뱃대를 들어 태양을 향하여 돌리시면 구름이 해를 가리기도 하고 걷히기도 하여 구름을 자유자재로 좌우하셨도다.⁵⁴⁾

인간 감정은 타인 또는 이웃의 감정과 연동되어 있기에 타인 또는 이웃의 판단과 감정에 의존하는 셈이다. 따라서 타인 또는 이웃의 마음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며 자신의 감정을 확인시켜 준다. 상제는 기러기에게까지 관용신뢰의 가치를 구현하며 그 생명을 구하셨다.

상제께서 김 익찬(金益贊)을 데리시고 전주 세천(細川)을 지나실 때 일본인 포수가 냇물 위에 앉아 있는 기러기 떼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차마 보지 못하겠노라」 하시고 왼발로 땅을 한 번 구르고 그 자리에 서시니라. 그 찰나에 기러기 떼가 날아가는지라. 그 뒤에 상제께서 발을 옮기시더니 그제야 총소리가 들렸도다.⁵⁵⁾

대순사상에서 관용신뢰의 가치는 타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의지를 발동시켜서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상제께서는 눈이 가득히 쌓인 길에서 고통 받는 창생을 보고, 관용신뢰의 가치는 고통에 대해 ‘동정·자비’를 발동시켜 그 발걸음을 편하게 하셨다.

54) 『전경』, 권지 2장 11절.

55) 같은 책, 권지 2장 5절.

상제께서 농암에 계시실 때에 황 응종과 신 경수가 와서 배알하고 「눈이 길에 가득히 쌓여 행인이 크게 곤란을 만나이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장근(壯根)으로 하여금 감주를 만들게 하여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잡수시니라. 쌀쌀하던 날씨가 별안간 풀리면서 땅의 눈이 녹아서 걷기가 편하여졌도다.⁵⁶⁾

관용신뢰의 가치는 이웃의 즐거움과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이웃의 고통을 치유하는 ‘도덕적 상상력’(moral imagination power)이 작동될 필요가 있다.⁵⁷⁾ 이 가치는 도덕적 시인(是認)·사회적 효용(效用) 가치를 수반한다. 그 방법은 후천선경에 동참하여, ‘동정’과 ‘자비’의 실천반경을 확산시킴에 그 관건이 있다. 실천방법에 공감할수록 평화세계가 구축된다. 관용신뢰의 가치는 갈등을 봉합하여 해원상생의 공감대를 이룬다. 만물, 모든 생명, 그리고 인간들의 삶 자체가 해원상생의 연동관계로 자각하여 생활하게 된다. 그 대상으로서 창생은 피지배층, 소외당하고 억압받는 공중(公衆)이다. 공중으로서 창생은 ‘재겁’(災劫)에 쌓이고 ‘잔피’(殘疲)에 허덕이는 사람으로 구원이 절실한 사람들이다.

상제께서 이 땅에 자리 잡고 이와 같은 천지공사를 하게 되는 이유를 정치가 정치의 역할을 못하고 종교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궁(苦窮)에 빠져 허덕이는 민중을 광구(匡救)할 뜻으로 인신화현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펴게 되었다고 했다.⁵⁸⁾

관용신뢰의 가치를 추구하는 창생은 인권이 유린된 빈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당시 상제께서 관심을 두었던 창생은 승려·노비·서자·상민·광대·빈민·무당·여성 등 아래층 사람들이었다. 상제는 들판에서 농사짓는 사람, 산중에서 화전(火田)하는 사람, 특히 남에게

56) 같은 책, 권지 1장 25절.

57) 앞의 책, p.211.

58) 『전경』, 예시 1-9절 참조.

맞고도 대항치 아니하는 사람들을 상등(上等) 사람이라고 보았다.⁵⁹⁾

상제는 창생들의 인권을 회복시켜 상등사람으로 끌어올리고자 ‘해원상생의 생활’로 인도하였다. 계급이 불식되고 반상차별, 직업차별, 천민차별이 없어진다. 빈부차별이 일소되고, 남녀평등 사회가 된다고 했다.⁶⁰⁾ 무엇보다도 관용신뢰의 가치의 생활이 되려면, 핍박받고 궁핍한 창생의 인권이 회복되고, 차별이 철폐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 전하여 오는 모든 허례는 묵은 하늘이 그릇되게
꾸민 것이니 앞으로는 진법이 나오리라.⁶¹⁾

천민차별·빈부차별·남녀차별을 철폐하여 서로가 은혜로운 존재라는 기억을 상기하여 조화롭게 평화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국제관계에서도 관용신뢰로 힘의 열등관계를 극복하여 동서화합을 이룬다. 1903년 여름에 상제께서는 세계사를 바꾸는 ‘대신문’(大神門)을 여셨다. 이는 세계사의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원통함을 사전에 조율하는 공사로서, 마음의 억울함이 발생하더라도 관용으로 대하며, 신조가 다른 타인의 사상, 신조나 행동을 허용하면서 자기의 사상이나 신조를 외적 힘을 이용해서 강제하지 않는 포용성을 의미한다.

이제 서양 사람의 세력을 물리치고 동양을 붙잡음이 옳으니
대신문(大神門)을 열어 사십구(四十九)일을 한 도수로 하여 동
남풍을 불어 일으켜 서양세력을 꺾으리라.⁶²⁾

상제께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로 상실되면서 그 힘이 조선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했다.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도 해원상생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일본은 강렬한 지기가 모여 있기에 침략성이 강하여 예

59) 같은 책, 교법 1장 55절.

60) 유병덕 외, 『한국근세종교의 민중사상 연구』, 『한국종교』 14 (1989), pp.102-103.

61) 『진경』, 교법 3장 37절.

62) 같은 책, 예시 24절.

로부터 그들의 침노를 받는다고 보았다. 그 지기를 뽑아 버려야 장차 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상제께서는 관용신뢰의 가치에서 일본을 친히 대하며 서양세력을 멀리 함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상제께서는 일본에게 ‘일시천하통일지기’(一時天下統一之氣)와 ‘일월대명지기’(日月大明之氣)를 붙여서 역사토록 하였다.⁶³⁾ 일본에 위탁하여 일시적 책임을 맡겼다가 장차 한민족으로 하여금 다시 깨어나 주인이 되게 허락하였다.

갑질이 병옥으로부터 일본 신호(神戶)에 큰 화재가 났다는 신문 보도를 듣고 돌아와서 그대로 상제께 아뢰니 상제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일본의 지기가 강렬하므로 그 민족성이 탐욕과 침략성이 강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을 일삼느니라. 옛적부터 우리나라는 그들의 침해를 받아 왔노라. 이제 그 지기를 뽑아야 저희의 살림이 분주하게 되어 남을 넘볼 겨를이 없으리라. 그러면 이 강산도 편하고 저희도 편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전날 신방축 공사를 보았음은 신호(神戶)와 어음이 같음을 취함이었으니 이제 신호에 큰 불이 일어난 것은 앞으로 그 지기가 뽑힐 징조이로다」고 하셨도다.⁶⁴⁾

그리고 상제께서는 금후 인류사회를 영도하고 이끌어 나갈 정신적 종주국으로 우리나라를 선정하여, 새 세상의 정신적 종주국으로 삼았다. 그리고 일본을 경계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세상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무수한 사림(士林)의 화로 말미암은 사화(土禍)로 고통 받던 조선을 살피시되, 무명약소 민족이지만 천지신명을 잘 받들기에 ‘보은줄’을 내려 강세하셨다.

이제 동양 형세가 위급함이 누란과 같아서 내가 붙잡지 아니하면 영원히 서양에 넘어가리라. 내가 일로전쟁(日露戰爭)을 붙여 일본을 도와서 러시아를 물리치리라 하기도 했다.⁶⁵⁾

63) 같은 책, 공사 2장 4절.

64) 같은 책, 공사 3장 31절.

그들에게 일시 천하 통일지기(一時天下統一之氣)와 일월 대명지기(日月大明之氣)를 붙여 주어서 역사케 하고자 하나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인(仁)이니라. 만일 인 자까지 붙여주면 천하가 다 저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인 자를 너희들에게 붙여 주노니 잘 지킬지어다」고 이르시고 「너희들은 편한 사람이 될 것이오. 저희들은 일만 할 뿐이니 모든 일을 밝게 하여 주라. 그들은 일을 마치고 갈 때에 품삯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리니 말대접이나 후덕하게 하라」 하셨도다.⁶⁵⁾

‘인’(仁)은 관용과 신뢰를 형성하는 ‘관계성’의 원리이다. 그 관계성을 새롭게 열어가는 ‘공공성’의 의미도 함축한다.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인 자’를 부여한 것은 일본인에게 한반도 침략야욕을 일시적으로 해소시키지만 그 관계회복의 주체는 한국인에게 일임하여 새롭게 열도록 여지를 남김으로써 한일 사이의 미래지향적 신뢰관계를 구축하게 하셨다. 창생염원에 응답하여 출현하신 강성의 미륵불은 ‘도통줄’과 연계되고, 강성의 ‘개벽장’은 서신으로 사명하여 후천선경을 주재하는 일과 상관된다.⁶⁷⁾ 이를 통한 관용신뢰의 개선은 세계시민성 시대를 맞이하여 인류사회를 포함시켜, 한국인으로 하여금 예의 근본으로 인(仁)을 회복하게 함으로 인류사회에 자유·평화·평등의 비전이 구현되도록 하였다. 상제는 후천의 새 운수가 조선반도에 도래하도록 하였으며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이 땅을 선경의 비전으로 전환시켰다.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 선경을 만들리라.⁶⁸⁾

천하가 한울타리가 되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함으로 세계시민성이 가능한 길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기후도 다스려서 ‘수화풍’(水火風) 삼

65) 『전경』, 예시 23절 참조.

66) 같은 책, 공사 2장 4절.

67) 고남식, 「대순진리회 강성상제의 신격과 그 의미」, 『대순사상논총』 22 (2014), p.27.

68) 『전경』, 권지 1장 21절 참조.

재마져 사라지게 하여 상서(祥瑞)의 전망을 나타냈다. 생명이 두루 잘 사는 새 길이다. 천혜(天惠)와 지리(地利)를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천지간의 동등시대를 열어 더불어 잘 살아가는 상생도의 생활양식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재생 의세(濟生醫世)는 성인의 도요 재민 혁세(災民革世)는 응패의 술이라. 벌써 천하가 응패가 끼친 괴로움을 받은 지 오래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상생(相生)의 도로써 화민 정세하리라.⁶⁹⁾

정신개조는 형식적 예절보다 자비롭고 어진 마음의 본바탕을 회복하는 관용신뢰로 이루어진다. 자신이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관용이 없다면 상호 호혜적인 신뢰 구축은 지속되기 어렵다. 상대방의 관용에 의지하기보다 자신이 먼저 관용을 베풀기 때문에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능동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과거에 많은 성현이 출현하였지만, 상호 호혜적 신뢰구축을 지속할 수 없어 이 세상을 지상선경으로 바꾸지는 못하였다. 『대순지침』에 의하면, 이상적 삶으로 ‘상생윤리의 생활화’로 관용신뢰를 통한 ‘국리민복’(國利民福)의 기여를 주문한다.

도를 믿는 자는 안 믿는 자에게 더욱 친화(親和)를 두터이 하여 이해와 관용을 베푸는 것이 상생의 진리이다. 국법을 지키고 윤리도덕을 준행하며 국리민복에 기여하게 하라.⁷⁰⁾

관용신뢰의 가치구현으로 위무와 형벌은 사라질 것이며 빈부의 차별도 일소될 것이다. 지구윤리에서 관용신뢰의 기본방향은 ‘신뢰로 말하고 행동하라!’이다. 무엇보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원리가 대중전달매체에도 생명력을 갖는다. 이것은 관용의 문화와 신뢰의 삶에 대한 책임성을 의미한다. 우리의 지구를 위한 공통핵심의 윤

69) 같은 책, 교운 1장 16절.

70) 『대순지침』, p.10.

리규범을 고려하지 않고는 종교 간의 성공적인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⁷¹⁾ 번뇌를 퇴치하고 빈부차별을 바로잡는 관용신뢰의 방향은 ‘인간의 평등한 도덕적 지위’를 낳게 된다. 『전경』에서 살펴본다.

후천에는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며,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율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빈부의 차별이 없게 된다.⁷²⁾

선천에는 청춘과부가 수절한다하여 공방에서 쓸쓸히 늙어 일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불가하니 후천에는 이 폐단을 고쳐 젊은 과부는 젊은 홀아비를, 늙은 과부는 늙은 홀아비를 각각 가려서 친족과 친구들을 칭하고 공식으로 예를 갖추어 개가게 하는 것이 옳고, 과부라도 개가하여 새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⁷³⁾

상제께서는 여권(女權)을 우대하고, 여성의 지위를 신장시켰다. 해원상생의 생활방식은 원한과 척이 없는 조화로운 방식이다. 식욕이 고르게 되어 원통이 없는 세상이 된다.⁷⁴⁾ 사람들이 선의로 함께 잘사는 세상이 된다. 국가 간의 대립도 사라지고, 인종차별도 불식되며, 종교 들도 서로 만나고 넘나드는 세상이 된다. 과학과 종교, 정치와 종교, 이념과 이념 간에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 만나는 세상이 된다. 마침내 과학 문명과 정신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 된다. 대순사상의 관용신뢰의 가치는 해원상생의 실천에서 구체화된다. 이를 통하여 인권을 회복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함께 잘 사는 선경세상을 이룩한다.⁷⁵⁾

해원상생 의통이 ‘단주수명(丹朱受命) 태을주(太乙呪)’에 나타난다.

71) 한스 쾅, 앞의 책, p.21.

72) 『전경』, 예시 81절 참조.

73) 같은 책, 공사 2장 17절 참조.

74) 같은 책, 교법 2장 58절.

75) 김홍철, 앞의 글, pp.79-80.

단주는 상생정신의 표상이고, 태을은 상생생명의 본원이다. 상극시대에는 단주로 말미암아 상생일가 대동세계의 꿈을 펼치지 못했다. 이는 태을이 독기와 살기의 기운 때문에 신성에 근거한 역동적인 생명력을 발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상제께서 천지를 뜯어고쳐 상극지리를 상생지리로 돌려놓고, 상생인물 단주와 상생주문 태을주를 서로 만나도록 함으로써 ‘관왕(冠王)의 복합주의(複合主義)를 구현하여 명실상부(名實相符)하게 ‘원융회통’(圓融會通)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상제께서 후천의 상생해원의 인존시대를 여시기 위해, 9년 동안 행하여 온 개벽공사를 천지에 확증하게 한다. 뇌성과 지진으로 그 확증을 표명했다. 해원의 중심에 단주(丹朱)와 태을(太乙)이 있다. 상극역사가 단주로 상생해원의 계기를 마련하되, 상극의 생명이 상제권능에 따른 천명으로 해원해야 비로소 후천의 인존세상이 열리게 된다.

「九년간 행하여 온 개벽공사를 천지에 확증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참관하고 확증을 마음에 굳게 새겨 두라. 천지는 말이 없으니 뇌성과 지진으로 표명하리라.」 상제께서 모든 중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 별안간 천둥 치고 땅이 크게 흔들렸도다.⁷⁶⁾

상생의 인존세상을 여는 해원의 핵심은 단주와 태을로서, 증산상제께서 ‘단주수명 태을주’의 약장공사를 보셨다. 동서양으로 각기 나뉘어 분리된 양상을 관왕이치로 조화시켜 해원상생의 ‘인존시대’(人尊時代)를 열게 하셨다. 관왕이치로 신명에 의한 역동적인 생명력을 회복시켜 인존세상을 열어가며, 목은 하늘을 개벽하여 병겁은 의통으로 해소함으로써 구천상제의 해원과 옥황상제의 ‘보은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의통은 성인의 직업으로 생명살림과 관왕에 의한 생명조화에 주안점을 두어 관용신뢰의 세상을 형성하는 도리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1901년 상제의 대원사 공부로부터 인존시대가 열렸지만, 병겁의

76) 『전경』, 공사 3장 38절.

시대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세계시민성 함양의 공공차원으로 그 확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병겁의 시대는 총체적 해결을 요구하기에, 관왕이치를 함유하는 복합주의에 의해 관용신뢰의 세계시민성 확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심령과 혼백의 안정을 꾀하고 성령을 접하게 하여 천하창생을 구하는 주문(呪文)의 지송(持誦)으로 관왕의 실천양식을 제공하였다. 선도(仙道), 불도(佛道), 유도(儒道) 뿐만 아니라 서도(西道)를 거느리고 나온 상제의 법은 고운(孤雲)의 포함삼교(包含三敎)가 아니라 관왕사교(冠王四敎)의 새로운 이치로 인권회복을 위한 세계시민성의 새 길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관왕이치의 도는 도술심법으로, 그 설계는 ‘귀마일도’(龜馬一道)마저 극복함으로 ‘의통’(醫統)으로 귀일(歸一)하게 만들었다. 과거의 ‘귀마일도’는 하도와 낙서를 하나로 모은 금화교역으로, 주역에서 벗어나 정역의 출현을 예견하였다. 배 속에 잉태하여 태어난 태아처럼, 포태(胞胎) 과정과 그 연운으로 양성되어 인권회복의 세계시민성을 펼쳐갈 때, 상제권능을 입은 태을주는 그 매개원리로 작동한다.

최 제우는 경신(庚申)에 득도하여 시천주(侍天呪)를 얻었는바 기유(己酉)까지 五十년이 되니라. 충남(忠南) 비인(庇仁) 사람 김 경흔(金京訥)은 五十년 공부로 태을주(太乙呪)를 얻었으며 그 주문을 신명으로부터 얻을 때에 그 주문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라는 명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이 두 사람 중의 누구를 해원하리오」라고 물으시니 시좌하고 있던 종도들 중에서 광찬이 「상제님의 처분을 기다리나이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시천주는 이미 행세되었고 태을주를 쓰리라」 하시고 읽어 가르치시니 그 주문은 이러하였도다. 「ㅈㄸㅈㄸㅈㄸ 太乙天上元君 ㅈㄸㄸㄸㄸㄸ ㅈㄸㄸㄸㄸㄸㄸ」⁷⁷⁾

대순사상의 관용신뢰는 ‘함’(含)에 의거하여 생명의 역동성을 살리

77) 같은 책, 교운 1장 20절.

는 성실함과 마주한다. 정신적 내포의 ‘함’(含)은 물질적 내포의 ‘함’(涵)과 구별된다. 유불선서(儒佛仙西)의 형태를 ‘함’(含)으로 활용한 대순사상은 관왕이치로 복합주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일괄지도’(一括之道)로서 실천화용하는 ‘성경신’(誠敬信)으로 욕망의 사곡(邪曲)에서 벗어나 순결하게 ‘천지공정’(天地公廷)에 참여하게 함으로, 성경신은 세계시민성 함양의 실천덕목이 되었다. 대순사상에 ‘성경신’이 없다면, 불교가 격(格)에 맞지 않고, 유교가 뜻(意)을 세울 수 없고, 선교가 기질(氣質)을 변화시킬 수 없듯이 관용신뢰를 몸으로 익히기에는 역부족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성경신’으로 세계시민성의 덕성을 함양함으로, ‘함’(含)의 포용에 의거하여 유불선서(儒佛仙西)의 동서차이의 존재 양식을 배타적으로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내주’(內住)하게 하면서 생명역동의 차원에서 ‘상즉상용’(相卽相容) 하여 초월이 내재와 더불어 관왕이치로 조화를 이룬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적용되는 관용신뢰의 가치로 뿌리내리게 함으로 인권평등의 세계시민성 함양을 가능하게 하였다. 지구차원에서, 우리는 안정되고 조화로운 지구와 토착적인 정신적 전통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다.⁷⁸⁾

V. 맺음말

대순사상의 음양합덕의 원리, 신인조화의 원리, 해원상생의 원리는 세계시민성의 생명존중의 가치, 연대화합의 가치, 관용신뢰의 가치와 상호 연동된다. 대순사상의 구현목표로서 인간존엄은 인권회복의 계기가 되어 꺾박받던 창생들의 희망과 목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상제께

78) 뚜웨이밍, 「지구화와 문명 간의 대화」, 『미래사회와 종교』 (익산: 원광대출판부, 2000), p.28.

서는 실제적으로 창생들을 상등사람으로 만들고자 여러 공사를 집행하였고, 천지공사의 도수를 통해 천민차별·빈부차별이 일소되고 인간 존엄이 구현되도록 구체화시켰다.

구천상제께서는 이 땅을 인류구원의 기지로 설정하고, 우리민족을 화합의 구심점으로 삼아 복합주의에 근거한 선경건설의 수순으로 삼았다. 상제께서는 서양세력을 물리치고 일본을 앞세워 일을 집행한 뒤에는 장차 이 나라를 구심점으로 삼아 세계의 평화구축의 요람이 되게 하는 공사까지 함께 펼쳤다. 그리고 천지인의 불통을 도통으로 이어주고 매개하고 살리는 가운데 선천종교의 진액(津液)을 복합·활용하였다. 특히 ‘합’(合)의 포용논리에 의거하여 음의 내포는 양의 확장으로 부정되고 이는 다시 음양합덕으로 전화(轉化)함으로 이중 모순 타파에 따른 변증법적 생명역동성을 창발(創發)하는 복합기제의 청사진을 제시하셨다.

이처럼 ‘유·불·선’(儒·佛·仙)의 진수를 내포하면서 상제의 복합기제로 아우른 대순사상은 서구의 환원주의 통섭(統攝, consilience)과 구별된다. 이 개념은 휘웰(William Whewell, 1794-1866)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귀납적 과학철학(*The Philosophy of the Inductive Sciences*)』에서 나타난 것이다. 휘웰은 귀납법을 새로운 사상형성에 따라서 추적하고 그것과 연관된 사실들을 함께 묶어 통합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귀납법이 합체로 드러나면서 귀납법의 통섭을 통해 신뢰할 만한 개념구축이 설득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런데 대순사상에서는 선천종교의 문명신들을 종장(宗長)으로 임명하면서 후천 선경공사에 참여시키고, 상제 스스로 미륵불 또는 신선으로 자처하면서 기존의 법을 복합적으로 매개하는 방법을 통하여 타자 또는 이웃에 친밀하게 다가서는 ‘복합주의’(multiplism) 기제를 구축하였다. 상제께서는 당시의 토양에서 큰 역할을 나타냈지만 후천에서 많은 결함이 발견되는 선천종교의 불합리 요소들을 털어버리고 수월을 복합·활용하셨다.

무엇보다도 대순사상에서는 개벽도수의 청사진을 마련하여 천·지·인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인간을 근본적으로 거듭 나게 하려는 상제의 덕화를 확인할 수 있다. 천하가 한집안이 되며 동서양의 구별이 사라지고, 언어가 통일되어 세계시민성이 함양된다. 아울러 선천종교의 폐단인 종교 사이의 반목이 사라지고 인류행복을 위해 이웃과 함께 협력하게 된다. 낙원선경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대순사상의 세계시민성 가치는 ‘대순종지’(大巡宗旨)의 청사진으로 나타났으며 인류의 공공행복(公共幸福)을 실현시키는 복합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후천개벽은 천지운도에 의해 저절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상제의 천지공사의 비전과 신인조화의 궁극적인 존재론 차원으로 공공협력(公共協力)으로 성취된다.

대순사상 출현의 세계시민성의 의미를 요약하면, 대순사상은 민간 신앙, 무(巫)와 선(仙)의 신앙, 유·불·도의 전통종교, 서학사상 그리고 동학사상의 진액(津液)까지 거두어 ‘함’(含)에 의거하여 두루 활용하고 관왕이치로 조화를 이루는 ‘복합주의’ 기제로 원만조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동·서양 종교들을 균형 있게 조화를 맺게 함으로, ‘초월’과 ‘내재’의 상호 배타적 요소가 ‘함’의 포용으로 변증법적 긴장과 생명의 역동성을 발휘하게 함으로 대순사상은 세계시민성 전망을 통해 상서(祥瑞)가 무르녹는 지상선경 건설을 예비하고 있다.

구천상제께서 상생해원의 후천 인존시대를 여시기 위해, 선천세계에서 풀지 못했던 상극의 독기와 살기를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하여 신인조화의 대의로 밝히셨다. 해원의 중심에 단주(丹朱)와 태을(太乙)이 함께 있다. 상제천명으로 상극역사가 단주로 상생해원하고, 상극의 생명이 태을로 해원상생해야 비로소 신인조화의 인존세상이 열린다. 상생의 인존세상을 여는 해원의 핵심은 단주와 태을이기에, 상제께서 ‘단주수명 태을주’ 약장공사를 보셨다. 동서양으로 각기 나뉘어 분리되어 발전되던 정신세계의 숨결을 관왕이치로 조화시켜 인권회복이 가능한 생명존중에 의해 인존시대가 새롭게 열리도록 하였다.

이처럼 대순사상은 세계시민성의 함양을 향해 개혁도수를 실제로 구현하면서 현실과 이상을 상관연동으로 조화시킴으로 연대화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후천문명을 이상적으로 표현한 지상선경은 천지공사의 결정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관용신뢰의 세계시민성의 성숙한 열매로 귀착하는 선경이다. 그런데 정신개혁에 위한 ‘무자기’(無自欺)를 근본으로 삼고 인간의 본래성품, ‘원각’(圓覺)의 청정성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지상선선은 요원(遼遠)해 질 수도 있다. 지상선선이 될 수 있는 인간개조를 통해 세계시민성의 함양이 천지공사의 도수대로 완성되고, 생명존중·연대화합·관용신뢰가 원만조화(圓滿調和)를 이루어 상서(祥瑞)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을 ‘원융회통’(圓融會通) 하게 만들 수 있다. 그 요체는 대순사상을 통한 세계시민성 함양의 실천적 이행에 달려 있다.

우리는 다원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대순사상에 나타난 세계시민성의 가치를 모색하고, 종교윤리 방법에 근거하여 대순사상의 세계시민성 가치를 규명하였다. 세계시민성 가치는 세계시민의 ‘공통핵심’(common core)에 근거한 보편규범으로, 대순사상의 원리와 세계시민성 가치는 서로 상응하면서, ‘책임의 세계적 범위’(Global scope of responsibility), ‘공동체에 대한 세계시민의 태도’(Global citizen's attitude towards one's community), ‘인간의 동등한 도덕적 지위’(Human's equal moral status)의 구성요소를 조화롭게 살리기 위한 상생도리(相生道理)가 요체를 이루고 있다.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서울: 대순진리회 교무부, 2003.
- 고남식, 「대순진리회 강성상제의 신격과 그 의미」, 『대순사상논총』 22, 2014.
- 김용환, 『종교윤리와 정산사상』, 청주: 도서출판 개신, 2009.
- _____, 『세계윤리교육』, 청주: 충북대출판부, 2010.
- 김홍철, 「해원상생사상과 그 실현이념」, 『대순진리학술논총』 4, 2009.
- 박용철, 「구천응원녀성보화천존 신앙에 대한 한·중 제도권의 대응」, 『대순사상논총』 21, 2013.
- 양무목, 「지상신선 - 인간개조의 연구」, 『대순사상논총』 14, 2002.
- 이경원, 「구천상제론의 시각에서 본 천지공사의 실제와 교리적 의의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22, 2014.
- 이항녕, 「해원상생사상의 현대적 의의」, 『대순사상논총』 4, 1998.
- 한스 쾅, 「새 세계질서를 위한 지구윤리」, 『미래사회와 종교』, 익산: 원광대출판부, 2000.
- Hans Küng, *Global responsibility*, New York: Continuum, 1996.
- John Hicks, *Arguments for the existence of God*, NY: Herder and Herder, 1971.
- _____, *God has many nam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2.
- _____, *A Christian Theology of Religions*, Kentucky: SCM Press, 1995.
- John P. Wright, *Hume's A Treatise of Human Na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Keith Ward, *Religion and Revelation: A Theology of Revelation in*

- the World's Relig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1994.
- Nigel Dower, "Global Ethics and Global Citizenship", *A Global citizenship,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Routledge, 2002.
- Panikkar, Raimond, *The Intra religious Dialogue*, New York: Paulist Press, 1978.
- _____, *The Cosmotheandric Experience: Emerging Religious Consciousness*, New York: Orbis Books, 1993.
- _____, *The Experience of God, Icons of Mystery*,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2006.
- Paul J. Griffiths, *Problems of Religious diversity*, Massachusetts: Blackwell Publishers, 2001.
- Peter Byrne, *Prolegomena to Religious Pluralism*, London: Macmillan Press, 1995.
- Thomas Dean ed., *Religious Pluralism and Truth essays on Cross-cultural Philosophy of Religio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7.
- William Schweiker ed., *The Blackwell Companion to Religious Ethics*, Malden: Blackwell Publishing, 2005.

▪Abstract▪

A Study on the World Citizenship Values of Daesoon Thoughts in the Era of the Plural Society

Kim Yong-hwa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the value of the world citizenship in the perspective from the root meaning that is stressed as the behavior style of Daesoon thoughts in relation with ‘desirable attitude of life in education of morality. Traditional root meaning of Daesoon thoughts turned out to be proper moral behavior principle such as Yin Yang harmonious virtue, God Humane keeping unity, and conviviality with regrets settlement. Such three principles of Daesoon Thoughts show the characteristic of global code such as respect of life, solidarity unity, and tolerant trust. To revise the phenomenon of duality, and to realize the human awakening in radically changing reality, we need to cultivate world citizenship based on the root meaning of Daesoon thoughts.

Daesoon thoughts covering the East and the West, especially the key features of religion, can cultivate the world view of citizenship in the era of plural society based on folk beliefs toward Gucheon Sangje faith as the essence of the multiplism. The world citizenship of human society is necessary to unite

the world in the unified construction cooperative spirits. All beings need to be away from antagonistic confrontation with the practice of mutual conviviality. The diameter of acquired joining world citizenship can have the opportunity to realize of Gucheon Sangje's Heaven and earth construction.

The root meaning of Daesoon thoughts can contribute to moral practicality with world citizenship by practice of heavenly truth and human truth. First, cultivating heavenly truth by means of insight can develop the profound world citizenship. Secondly, the solidarity of the public and private can cultivate public citizenship. Thirdly, in the crisis of the mankind, this awakening conviviality can be foundation for world citizenship of public communication. Fourthly, the spirit that would not deceive ownself can be contributed to cultivating the world citizenship by means of the process of internalizing Daesoon thoughts.

Nowadays in the plural society demanding world citizenship, the public citizenship can deepen the spirit of respect of life, solidarity unity, and tolerant trust in the process of world citizenship cultivation. In the future, the world citizenship can be deepen the alternative of practice in the continuous cultivation of world citizenship. In this process, we can form the culture of coexistence which can contribute to human society as well as korean society by developing the value of living together happiness through the guide of this phonesis.

Key words : world citizenship, respect of life, solidarity unity, tolerant trust, root meaning of Daesoon thoughts, Gucheon Sangje.

- ◎ 투 고 일 : 2014년 5월 31일
- ◎ 심 사 기 간 : 2014년 7월 7일~18일
- ◎ 계 재 확 정 일 : 2014년 7월 27일